



## “첨단 고무매트, 젖소에게 편안한 환경 만들어줘”

### 알파축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낙농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으로 다가가는 알파축산(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목장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찾던 중 독일 크라이부르크(KRAIBURG)사에서 만든 고무매트를 찾아냈다. 정재면 대표는 젖소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 제품을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 박람회 통해 질 좋은 제품과 선진 낙농기술 보급 주력

알파축산은 1999년 드라발 착유기 대리점으로 출발해 최신형 분방착유기, 이동식착유기를 비롯한 낙농및 한우농가에게 다양한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충남 지역을 아우르는 업체로 성장했다. 정재면 대표는 농가에 필요한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면서 항상 생산성 향상과 작업편의에 도움이 되는 질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매년 독일, 유럽, 프랑스, 미국 등의 낙농선진국 박람회에 참여해오던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독일 크라이부르그 사의 고무매트였다. 당시 유럽에선 널리 보급되어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거다’ 싶어 6년 전부터 고무매트를 수입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런 인연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독일 최대 규모 축산박람회인 유로티어(EURO-TIER)를 방문해 크라이브루그 사의 부스 규모나 제품 종류의 다양함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선진 낙농 기술을 한국 낙농가에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알파축산은 크라이부르그 사의 정식 딜러가 되어 해외에서 딜러 미팅 및 교육을 받아 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국내에 보급하고 있다.

## 피로와 스트레스, 발굽장애에 효과적인 고무매트

“착유실, 대기장, 채식장 등 소가 자라는 환경을 자연과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무매트 설치입니다.”

국내 목장은 대부분 콘크리트 바닥으로 관리가 편하지만 소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착유실로 가거나 먹이를 먹기 위해 소가 움직일 때 콘크리트는 그 충격이 발굽에 전해지기 때문. 그래서 발굽장애와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알파축산은 완충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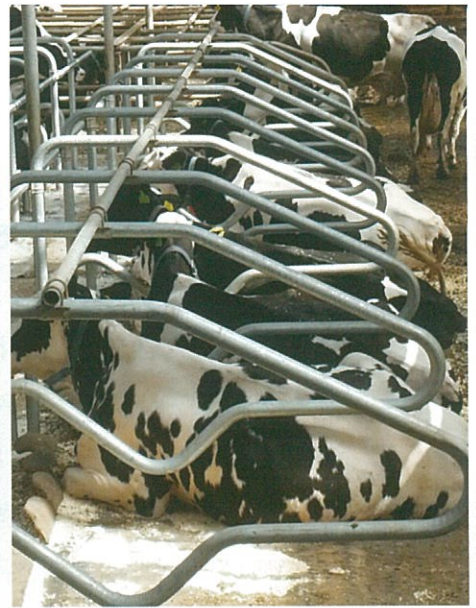


채식장에 고무매트를 깔면 더 오래 머무르고 더 자주 방문해 섭취량이 증가된다.





대기장에 고무매트를 설치하고 있는 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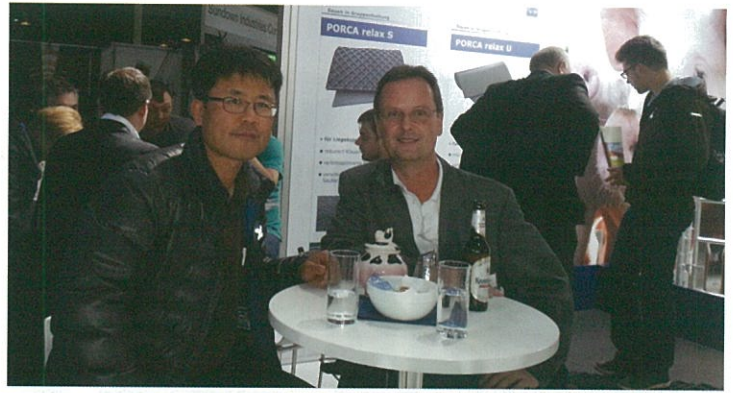
후리스틀(침상)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 젖소들

을 하는 고무매트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독일 크라이부르크의 첨단 고무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부드러운 재질로 젖소의 체형에 따라 매트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무게에 반응하는 탄력성 때문에 앉았다 일어날 때 젖소가 편안함을 느낀다. 둘째, 타사 제품들과 달리 매트를 손톱으로는 절대 뜯을 수 없을 정도의 압착력을 자랑한다. 특히 600Kg 이상의 젖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매트는 매트 표면의 무늬가 단기간에 쉽게 닳거나 없어져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지만, 이 제품은 표면 무늬가 쉽게 닳지 않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다. 셋째, 매트 표면의 무늬는 청소가 쉬우면서도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독특한 형태로 되어있다. 실제 손바닥으로 힘을 주면서 밀어보면 제동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닥은 엠보싱으로 돼 있어 배수가 잘 되는 동시에 쿠션이 뛰어나다.

이 고무매트를 착유실과 채식장, 대기장에 설치하면 젖소의 보행지수가 개선되고 착유실에 빨리 입장할 수 있으며, 발굽질환과 미끄럼으로 인한 도태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착유실 우상에 매트가 깔리면 젖소가 바닥이 편한 상태에서 착유하므로 스트레스가 없어 젖내림이 개선된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일어설 수 있으며, 청소가 편리하다. 착유실 피트는 장시간 착유해도

독일 국제 축산박람회 '유로티어(EURO-TIER)2014'에  
참석해 본사 담당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정재면 대표



독일 국제 축산박람회  
'유로티어(EURO-TIER)2014'의  
크라이부르크 부스에 전시된  
첨단 고무매트



피로가 덜하고, 겨울철에도 발이 시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기장 매트는  
장시간 대기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채식장 매트는 채식장에 오래 머물거  
나 자주 방문하도록 돕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설치해야 하는 곳이라고 정 대표는 강  
조한다.

실제 보령시 천북면의 한 농가에서는 “아들이 목장을 하면서 투자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이 착유실 피트를 깔 것”이라며, “청소도 쉽고, 오랫동안 착유해도  
발이 시리지 않아 피곤한 줄 모르겠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반응이 좋다.

이밖에 정재면 대표가 중시하는 것은 후리스톨(침상)이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후리스톨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국내는 아직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좁은 면적  
에 많은 소를 들일 수 있으며,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1990년초 후리스톨이 국내  
에 도입되었으나 적합치 않은 큐비클과 고무매트의 부재, 사후관리의 미흡 등으  
로 실패한 경험이 있어 꺼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톱밥우사에서 후리스톨  
우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줌





착유실 매트 of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정재면 대표

과 동시에 젖소의 건강한 무릎과 관절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후리스톨 매트 of 장점이다.

### ‘우보천리’ 마음으로 고객에게 다가가고 싶어

알파축산의 정재면 대표는 우직한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는 ‘우보천리’ 라는 말처럼 농가에 필요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낙농가와 상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새로운 시작이 바로 고무매트의 대중화이다. 현재 삼백여 농가에 보급했지만 그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한다.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보면 후리스톨은 10년, 착유실과 대기장은 5년인데 6년 동안 한 번의 AS가 없을 만큼 견고하고 수명이 긴 명품매트입니다. 앞으로 고무매트 제품을 보급해 농가가 잘 알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중화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농가에 보급해 젖소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우유를 만들어 내고 목장주는 편안하게 착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